

불당 생활권 품은 아산탕정 대단지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GS건설

1638세대... 교육·산업·생활 인프라 갖춘 입지 주목

GS건설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A3블록)'를 선보인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2개 동, 1638가구 규모다. 앞서 공급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A1블록)와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A2블록)와 합치면 총 367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132가구 ▲59㎡B 34가구 ▲84㎡A 963가구 ▲84㎡B 334가구 ▲84㎡C 66가구 ▲84㎡D 66가구 ▲84㎡E 31가구 ▲125㎡PA 6가구 ▲125㎡PB 5가구 ▲125㎡PC 1가구 등이다.

청약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아산시 및 충남,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보유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점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계약금(10%) 완납 후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단지는 천안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불당지구와 맞닿아 있어 불당동 학원과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산·천안의 주요 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며, 탕정·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등도 쉽게 오갈 수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구역 내 초등학교 부지(예정)가 계획되어 있으며, 탕정중, 탕정고(계획), 충남외고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4베이(Bay) 판상형 구조와 3면 발코니 설계를 적용했다.

재건축·신 봄 분양시 '알짜단지'

트리플 역세권 반포에 하이엔드 주거

오티에르 반포 포스코이앤씨

반포역·잠원역·고속터미널역 가까운 입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오티에르 반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적용한 첫 단지다. 오티에르 반포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4㎡ 13가구 ▲45㎡ 10가구 ▲59㎡ 43가구 ▲84㎡ 11가구 ▲97㎡ 3가구 ▲113㎡ 4가구 ▲115㎡ 2가구 등이다.

단지는반포역·잠원역·고속터미널역을도보로 이용

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잠원IC와 반포IC 접근성도 우수하다. 인근에 신세계 백화점과 센트럴시티 등 상업시설, 서울성모병원 등이 위치하며, 한강공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반포 학원과 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세대 내부에 유럽산 아트월과 세라믹 상판을 적용했으며, 수전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한 스킨로해, PL 창호는 독일산 프로파인 제품으로 디자인 완성도와 단열 성능을 동시에 고려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설비를 전 세대에 적용했으며, 지하에는 세대당 약 1.5~3㎡ 규모의 개인 창고도 마련된다. 약 380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에는 대형 피트니스



스센터와 GDR 스크린골프, 프라이빗 시네마, 실내형 스마트 그린팜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상부 스카이브릿지에는 스카이크레가 조성된다.

외관 디자인에도 차별화를 적용했다. 국내 아파트 최초로 입면 디자인형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패널을 적용해 건물 디자인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동시에 구현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아 선거를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은 '꽃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도시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면 있다. 신축 공급이 희소한 서울을 수도권에서도 규제 지정을 피한 용이 나온다. 대전과 아산, 창원 등에서다.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을 모두 갖춘 단지들이 선보이며,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한 부동산 지역은 대출 한도 제한으로 수요가 어 소형 면적대 위주로 청약 통장이 는 지역별 신규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접근성·학군 갖춰... 분상제도 주목

아크로드 서초 DL이앤씨

서이초 맞닿고 교대·양재도 가까워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조성하는 '아크로드 서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 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해당), 2일 1순위(기타) 청약접수를 받는다.

아크로드 서초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에 위치해 추첨제 60%, 가점제 40%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분양

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단지 대비 저렴한 3.3㎡당 약 7800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까운 더블역세권 단지다.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하기 쉽다. 강남역에서 다양한 광역, 일반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이초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 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한다. 편의시설로는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자리



한다.

단지에는 아크로드의 정체성을 담은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라운지를 비롯해 스크린 골프룸, 실내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스포츠코트 등이 갖춰진다.

무학산 인접, 초품아·생활 인프라 강점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태영건설

공원형 설계에 교통 개선 기대 더해

태영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원 자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12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3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타입별로는 ▲59㎡A 221가구 ▲59㎡B 27가구 ▲72㎡A 253가구 ▲72㎡B 114가구 ▲84㎡A 27가구 ▲84㎡B 96가구 등이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마산합포구에서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공급이자 대규모 브랜

드 단지다.

단지는 바로 앞에 무학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 입지로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 마산중, 마산고 등 명문 학군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무학산과 추산근린공원이 단지를 감싸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마산항 파노라마 조망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산 고속버스터미널, KTX 마산역, 서마산IC 등 주요 교통 거점까지 차량 이용 시 1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장유역을 거쳐 창원 마산역까지 약 51km를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 고속화 철도와 창원형 트램도 추진 중에 있어 교통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마트,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창원NC파크 등 주요 생활·문화 시설을 차량 10분 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마산의료원과 창원제일종합병원도 가까이에 위치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넉넉한 동간 거리를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지상에는 그린 플라자, 아파탕스 가든 등 데시앙만의 프리미엄 조경 설계를 더했다.

